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J리거 나상호 친정팀 광주FC 응원



지난해 K리그2 득점왕과 MVP를 한 뒤 J리거로 이적한 나상호(23·FC도쿄)가 “멀리에서도 광주FC를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 화제다.

나상호는 지난 17일 광주FC의 FA컵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 참여해 광주를 응원했다. 방송에 참여한 팬들이 나상호의 등장에 환호하며 인사를 건네는 등 팬미팅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광주FC는 이날 FA컵 안동과학대 경기 중계가 편성되지 않자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체 중계를 결정했고 익오프 10분 전인 오후 7시20분부터 라이브방송을 했다. 구단 홍보팀 직원이 캐스터를 맡아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 그리고 7명의 키커가 나선 승부차기까지 경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라이브방송에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수(296명)에 육박하는 200여명이 참여했다.

나상호는 경기 초반 라이브방송에 참여했고, 나상호의 등장을 지켜본 구단 직원이 “나상호 선수 왔네요”라고 말하자 “파이팅 광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도 나상호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다.

나상호는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주를 떠날 때 “멀리에서도 응원하겠다.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달라”던 당부의 말을 자신부터 실천, FA컵 경기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상호는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 광주FC 전지훈련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광주FC 유스 출신인 나상호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2017~2018년 광주FC 소속이었지만 올 시즌 FC도쿄로 이적했다.

한편, 광주FC는 안동과학대와 2-2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다. /최진화 기자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1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와의 8강 2차전에서 자신의 두번째 득점을 올린 뒤 허공으로 솟구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손흥민 멀티골...토트넘 챔스리그 4강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이 멀티골 활약을 펼친 토트넘(잉글랜드)이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이하 맨시티)를 따돌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7분과 10분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끝내 3-4로 무릎을 꿇었다.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기선을 제압했던 토트넘은 8강 2차전 원정에서도 손흥민의 멀티골 활약 속에 3-4로 패했지만 1, 2차전 합계 4-4가 되면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아약스(네덜란드)와 4강전에서 만나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2차전 3-4 패배에도 원정 다득점 준결승 티켓 UCL 개인통산 12호...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박지성 이후 8년만에 챔스리그 4강 한국선수

2골을 맞은 손흥민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12골을 쌓아 막심 사즈키흐(우즈베키스탄·11골)가 보유했던 UEF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즌 19·20호골을 한꺼번에 성공한 손흥민은 2016-2017 시즌에 작성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최다골(21골)에 1골 차로 바짝 다가섰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20골 고지를 넣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하지만 손흥민은 후반 3분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경고누적으로 아약스

와 4강 1차전에는 결장한다. 하지만 2010-2011 시즌 맨유에서 활약했던 ‘레전드’ 박지성 이후 8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에 서는 한국인 선수가 됐다.

전반 익오프 11분 동안 양 팀을 합쳐 무려 4골이 쏟아질 정도로 치열한 난타전 승부였다.

토트넘은 전반 4분 만에 맨시티의 라힘 스티어링에게 이른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때 손흥민이 해결사로 우뚝 섰다.

손흥민은 전반 7분 텔레 알리의 패

스가 맨시티 수비수의 발을 밟고 흐른 볼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논스톱 오른발 슈트로 동점골을 꽂았다.

기세가 오른 손흥민은 전반 10분 루카스 모라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또다시 오른발 슈트로 역전골을 쏘아냈다. 단 3분 만에 손흥민의 발끝이 불을 뿜었다.

하지만 토트넘의 기쁨도 잠시. 맨시티는 전반 11분 베르나르두 시우바가 동점골을 뽑아내며 2-2로 다시 균형을 맞추더니 전반 21분 스티어링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3-2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전에 나선 손흥민은 후반 3분 케빈 더 브라위너의 돌파를 저지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옐로 카드2장이 누적됐던 손흥민은 경고 누적 때문에 4강 1차전 출전 정지의 아쉬움을 맛봤다.

손흥민은 전반 7분 텔레 알리의 패

더욱이 토트넘은 후반 14분 맨시티의 세르히오 아케로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2-4로 끌려갔다.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3-4가 되면서 탈락의 위기에 빠졌다.

탈락의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28분 마침내 기적이 벌어졌다. 후반 교체 투입된 페르난도 요렌테는 커리어 트리피어의 코너킥을 골대 정면에서 몸으로 밀어 넣었다. 핸드볼 반칙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 판독을 통해 불이 요렌테의 골반에 맞았다며 득점으로 인정했다. 요렌테의 득점으로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4-4를 만들면서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게 됐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맨시티에 실점하면서 다시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전돼 한숨을 돌리고 마침내 4강 진출권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 체육인교육센터 장흥·완도 압축

장흥군과 완도군이 체육인 연수·보수교육, 거점 흑한기 훈련시설로 사용될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후보지로 최종 압축됐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체육인교육센터 2차 평가 결과 장흥군과 완도군이 포함됐다.

체육인교육센터는 선수와 지도자, 일반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능을 제공하고 체육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약 45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규모 2만 5,000㎡로 건립되며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과 숙소, 식당,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4개월 기후가 온화한 전남 8개 시·군(여수, 순천, 고흥, 장흥, 강진, 영암, 영광, 완도)과 경남의 2개 시·군(함양, 하동)이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장흥군과 완도군이 마지막 후보지를 좁혀냈다.

최종 후보지는 내달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최진화 기자

# 광주체고 안산 체고대항전 MVP

양궁 2년 연속 5관왕...광주체고 종합 4위

광주체고 안산(3년)이 제33회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양궁 5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안산은 지난 10-17일 부산 일원에서 열린 체고대항전에서 70m(338), 60m(348), 50m(344)에서 1위, 30m(355) 2위를 하며 개인종합 1,385점으로 우승했다. 개인종합은 대회신기록이다.

또 안산은 단체전에서도 박세은(1,347점), 이예진(1,339점), 조민서(1,318점)와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양궁 5관왕은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쾌거다.

7개 종목 200명의 선수가 출전한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를



광주체고 안산

획득,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역도에서는 박수빈(3년)이 3관왕에 올랐다. 레슬링에서는 G67kg급의 이경민

(3년), G87kg급 이승천(3년), F97kg급 홍상혁(3년), G63kg급 이호진(3년), G130kg급 김민재(3년) 등 5명이 금메달을 따냈다.

육상에서는 여고포환 정소은(3년), 여고창던지기 윤세진(3년)이, 복싱에서는 46kg급 성현태(2년), 64kg급 이기운(3년)이, 사격은 소총 오준영(2년)과 단체전, 여고핀수영은 표면400m 임주희(3년), 유도는 김민주(2년)가 여고 78kg이하 체급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성남 광주체고 교장은 “남은 기간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광주체고 선수들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문체부장관기 전국배구대회 내일 개막

광주여대 체육관 등서 이틀간 열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가 20-21일 광주여대 체육관과 첨단다목적체육관, 전자공고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동호인클럽 및 직장팀 82개팀(남자 48팀·여자 34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중국시니어팀도 참가, 시니어부에서 평소 같고담은 실력을 선보이며 배구를 통한 화합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은 20일 낮 12시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오한남 대한민국배구협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전날인 19일 오후 7시 P&J웨딩홀에서 환영연이 진행된다.

남자부는 입석대리그(15팀)와 서석대리그(9팀), 장년부(6팀), 시니어부(12팀), 실버부(6팀)로 나뉘어

열리며 여자부는 입석대리그(18팀), 서석대리그(9팀), 미시부(7팀)로 진행된다.

대한배구협회가 주최하는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가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는 국내 생활체육배구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선수와 임원 2,000여명을 비롯 대회 관계자와 선수 가족, 응원단 등 참가인원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배구협회 관계자는 “국내 생활체육 대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배구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불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대회 운영과 성공 개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